

곡성군, 뚝방마켓 확장 전통시장 가치 높인다

기차마을·마켓·관광지 연계 자연생태·편의시설 구축 등

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확보한 특교세 3억원을 활용, 뚝방마켓을 확장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드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지자체에 첫해 특교세 3억원을 지원한다. 2년 차에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자체별로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뚝방마켓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로컬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뚝방마켓은 2016년에 섬진강기차마을 근처에 방치된 하천둑을 정비하며 조성된 플라마켓이다. 현재까지 14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며 곡성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뚝방마켓은 매회 60명 이상 전국각지의 판매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곡성군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예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뚝방마켓을 시작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장업을 시작하고 곡성군에 정착하는 청장년층이 생겨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낭만공방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지역 작가들은 스트리트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변화를 통해 뚝방마켓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공실상가를 활용해 뚝방마켓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차역에서 기차마을과 뚝방마켓, 그리고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



곡성군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특교세 3억원을 활용해 뚝방마켓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곡성군 제공

를 연결하는 웨이파인딩(way-finding) 역할을 하는 통합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뚝방마켓 주변으로 곡성전원 자연경관을 살리는 자연생태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상인회와 뚝방마켓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소통과 아이디어 모임 덕분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향후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융합하는 공간으로서 뚝방마켓을 활용하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담양군, 최대 2000만원 보장

담양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담양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사고 발생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1년이며 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청구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2842)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 나주시, 안전수칙 준수 등

나주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오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 수렵인 49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피해방지단 활동 시 주·야간 식별이 쉬운 형광 안전조끼 착용, 인가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총기 사용 금지, 울바른 사체 처리 방법 등 운영 방식과 협조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신고는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61-339-8923)으로 하면 된다. 나주=박송엽 기자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경연 담양군, 20일까지 접수



가사문학의 산실 담양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랩 경연이 열린다.

담양군은 오는 7월8일 제5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만 13세부터 만 18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0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문화행사란 또는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asamunhak@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주체가 돼 조선시대 대표적 국문학 갈래인 가사를 현대적 리듬과 집목,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경연작품의 가사는 '한국명품가사 100선'에 있는 작품을 활용하며 작사와 작곡은 모두 창작품이어야 한다.

신청 시 동영상과 가사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조진용 기자

발달장애인 나주 긴급돌봄센터 개소

전남도, 전국 4번째 오픈

전남도가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를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나주에 개설하고 6월1일부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나주 긴급돌봄센터는 충남·강원·세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문을 연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회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아파트형 돌봄센터로 조성했다.

운영은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아파트 2가구에서 전문인력 11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는 나주 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긴급 일시 돌봄센터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동부권에는 2019년 8월부터 여수에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전남형 일시돌봄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중부권은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정부지원 나주긴급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부권은 6월 공모를 통해 전남형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올 하반기 운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만 4000여 발달장애인과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권역별 긴급 일시돌봄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돌봄센터 이용 신청은 평일 주간에는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2)로 연락하면되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전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061-333-0903)로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 귀농귀촌인 한미당 성향

화순군이 귀농·귀촌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팜 마켓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화순군 귀농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농부장이 운영됐으며 행사장 한켠엔 농산물 체험을 위한 떡메치기, 청국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9일까지 화순관광 청년 PD 모집

대표 관광지·맛집·명소 홍보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화순관광 청년PD'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가 광주 및 전남으로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개인 SNS를 운영하며 평소 화순 관광에 관심이 있는 자이다.

SNS 활용 우수자, 블로거, 유튜브, 여행작가, 관광·홍보업계 경력자는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6월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PD로 선정된 자는 관내 대표 관광지 및 맛집, 숨은 관광 명소를 찾아 관광 콘텐츠를 취재해 화순군 문화관광 누리집과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월 최대 4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해야 하며 활동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화순군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류를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061-379-3506)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PD를 통해 화순군 관광 콘텐츠를 발굴·홍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31만명 관람...2억2000만원 수익

곡성세계장미축제에 31만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곡성군은 5월 동안 세계장미축제가 펼쳐진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한 관람객은 31만명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0~29일 열린 축제기간에 22만명이 장미축제를 관람했으며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21일 4만5000명이 운집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푸드트럭 13대, 100석 이상 테이블이 방문객으로 가득차 입점 식당들은 축제 10일 동안 2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주말마다 장미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스포츠댄스 선수들이 왈츠, 탱고, 룸바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았다.

구성돼 경운기, 관기기, 예취기 등 생활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자가 정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당면 영농현안 등 지역 맞춤형 영농상담도 병행한다.

교육 신청은 마을 대표가 관할 읍·면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7월까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화순군은 영농철을 맞아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순회수리 교육은 총 25개 마을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비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순회한다.

순회수리 전문팀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과 해당 읍·면농업인상담소장으로